

# 중남미문학의 '황금시대' 연 두 작가

## 세계문단에 파문 일으킨 마르케스와 아마도의 최신작

### 남미 특유의 토착성과 정치성 반영

이차세계대전 이후 '문화적 선진국'임을 자부해온 서구 문단에서 더이상 주목할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함에 따라 세계의 문학애호가들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제3세계 문학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라틴아메리카문학은 19세기 러시아문학의 수준에 육박하는 위대한 서사문학의 곡창지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중남미문학의 황금시대'라는 말이 허등 부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60년대 이후 이 지역에서 쏟아져 나온 술한 시와 소설은 '상상력의 동맥경화상태'에 빠진 서구문단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즉 서구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소설에서 인물의 개성이 사라지고 스토리가 증발해버린 것과 달리 남미문학은 이 지역 특유의 토착성과 정치적 격변에 뿌리를 내리고 찬란한 이야기의 꽃을 피워 올린 것이다.

흡사 남미대륙을 종단하는 아마존강의 도도한 흐름을 연상시키는 이 지역의 문학인들 가운데 우리는 마르케스와 조르지 아마도라는 두 성좌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중남미문학의 오늘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 두 작가는 각각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다르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소설은 무엇보다 우선 재미있어야 된다고 믿는 이들은 예술성이나 공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읽는 재미' 그 자체를 작품마다 독자들에게 듬뿍 선사해주곤 했다. 대학교수로부터 사무실 사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이들 작품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번역 소개된 이들의 최신작 「백년동안의 사랑」(정성호 옮김, 東亞)과 「죽음을 삼킨 땅」(김석희 옮김, 시사영어사)은 우리를 다시금 남미의 강렬한 태양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오지로 안내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빚어내는 드라마를 만끽하도록 해준다.

### 사랑의 위대함 영원함에 대한 찬가

82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마르케스는 거의 전작품이 우리말로 옮겨져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자 급세기 최고 걸작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백년 동안의 고독」(문학사상사, 육문사)을 비롯, 「죽장의 가을」(청하)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민음사), 「예고된 죽음의 기록」(샘터),

「에렌디아」(까치) 등은 내란과 독재, 서구자본의 침탈로 얼룩진 남미의 정치현실을 예각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최상의 문학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동과 재미를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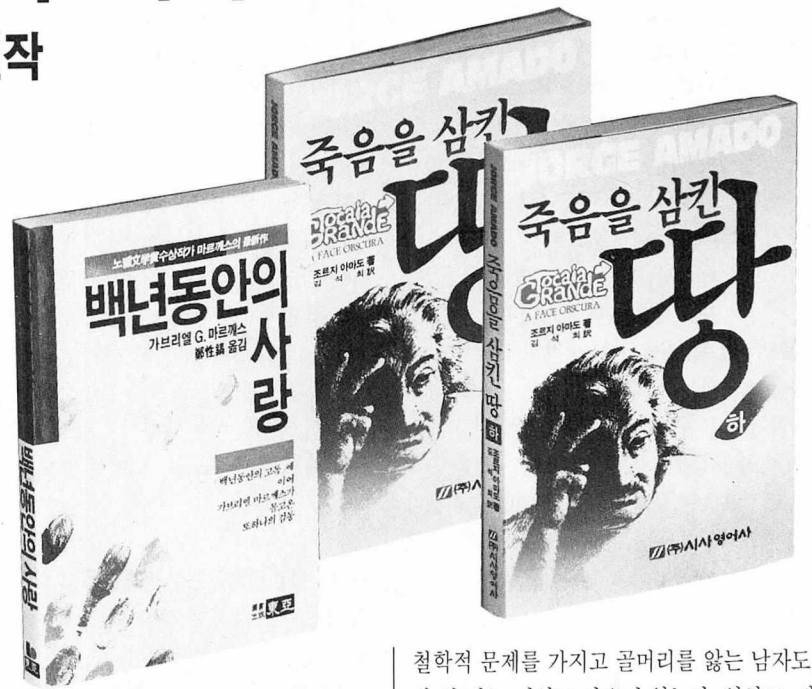
마콘도라는 가상의 小邑을 무대로 현실과 환상을 중횡으로 구사해가며 남미의 현대사 나아가 인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주었던 「백년 동안의 고독」을 읽고 난 독자들은 일중

**이차대전 이후 서구 문학이 전반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며 침체기에 접어들면 반면 중남미문학은 독특한 기법과 내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의 '탈진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문학평론가 유중호교수(이화여대)는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규모가 큰 작품을 다시 써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감회에 젖게 마련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최신작 「백년 동안의 사랑」(원제는 콜레라시대의 사랑)이 「백년 동안의 고독」을 능가하는 '더 재미있고 규모가 큰'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읽고 나면 '역시 마르케스구나'하는 찬탄을 금할 수 없을 만큼 거장다운 스케일과 세세한 이야기거리의 재미들로 가득찬 작품이다.

소설의 무대는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카리브해안의 항구도시. 페르미나 다자라는 여인을 향한 플로렌티노 아리자라는 사나이의, 일생을 걸친 순애보가 작품의 뼈대가 되고 있다. "도저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암시적인 첫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53년7개월11일이라는 긴 세월을 걸친 한 사나이의 집요한 사랑과 더불어 여러 인간들의 갖가지 사랑이야기가 피폭으로 짜여지면서 때로는 폭소를 때로는 연민을 자아낸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덧없음이 어떻게 사랑의 영원불멸함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된다.

마르케스의 소설엔 전염병이 자주 등장하는데(「백년 동안의 고독」의 경우 불면증 전염병), 이 소설에선 제목처럼 콜레라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중인물들은 콜레라로 상



징되는 온갖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겐 콜레라와 비슷한 증세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것이다. 권력과 고독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이 작가가 만년에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숙명일까. 현재 마르케스는 조국 콜롬비아를 떠나 스페인어와 매운 음식'에 반해 멕시코에 살면서 지금도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 중요한 관능성과 대지적 상상력

마르케스가 「콜레라시대의 사랑」에서 소도시를 무대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개인적 문제를 파고 들었다면, 라틴아메리카가 낳은 또하나의 대작가 조르지 아마도는 「죽음을 삼킨 땅」에서 20세기 브라질 남부의 오지를 배경으로 자연이나 외부세력과 싸우며 한 마을을 건설하는 근육질의 남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는 「가브리엘라」(안정호 옮김, 현암사), 「끝없는 대지」(최영수 옮김, 학원사), 「마음의 전쟁」(정규호 옮김, 지학사)을 통해 브라질이 낳은 이 항토주의 작가의 흠뻑새를 실컷 맛볼 수 있었다. 광활한 카카오농장, 땅을 둘러싼 대지주(대령)들의 혈투, 의리와 순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총잡이들, 자유 분방한 처녀들의 남성편력... '핏기 없는' 인간들의 '맥빠진' 이야기로 채워진 서구현대소설에선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낭만성과 관능, 자유로움, 이른바 '로맨스의 정수'가 거기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소설엔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남자도, 젠 체 하는 여성도 나오지 않는다. 일하고, 싸우고, 춤추고, 섹스하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들, 대지에 뿌리박은 건강한 육체와 낙천적 웃음, 그리고 단순소박한 밀바다 인생의 꿈으로 가득차 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이리소폴리스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추적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한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 처녀지는 두 대령들간의 토지쟁탈전에서 한 대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개척이 시작된다. 길이 닦이고 여행자와 상인들이 오가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 쫓겨난 사람들,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들이 하나씩 들쭉 자리를 잡는다. 인디언과 백인, 흑인, 혼혈, 심지어 아랍인까지 등장하는 이 인종의 박물관과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동과 희노애락을 작가는 천부적인 이야기 솜씨로 엮어나간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여자문제. 창녀와 결혼상대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은 독자를 요절복통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교나 법 없이도 잘 살던 이 마을이, 가뭄이나 열병같은 자연재해까지 무사히 극복한 이 마을이 끝내 이권에 눈먼 외부세력에 의해 파괴되고 마는 소설의 결말은 자연과 문명에 대한 씩씩한 성찰을 유도해낸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마르케스와 아마도의 최신작은 우리에게 오늘의 세계문학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 제3세계 문학에 있어서 현대성과 향토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줌과 아울러 '소설읽기'의 참다운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 불리던 현란한 실험정신을 이번 작품집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 작가의 연령과 관련하여 일말의 아쉬움을 주기도 한다.

—남진우 기자